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5년 3월 30일
제2046호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사도회장: 안민철 미카엘
사무실: 703 968 3010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sthasang@gmail.com

보좌신부: 양종욱 대건 안드레아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팩스: 703 968 3013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 · 희망의 순례자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루카 15,18-20)



〈돌아온 탕자 (부분)〉, 렘브란트

사순 제4주일 (다해)

제 1 독서 **여호 5,9ㄱ.10-12** |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화답송 **시편 34(33)** |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 2 독서 **2코린 5,17-21** |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

복음 **루카 15,1-3.11ㄴ-32** |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때에¹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²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³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¹¹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¹² 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¹³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¹⁴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¹⁵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¹⁶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나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¹⁷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¹⁸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¹⁹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²⁰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복음 묵상

오늘 복음에서 큰아들은 작은아들이 환대받고 있다는 소리에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큰아들을 찾아와서 타일렀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아버지에게 큰아들은 그동안 속으로만 간직해 왔던 섭섭함을 꺼내 놓습니다. 사실 큰아들은 “종처럼”(루카 15,29)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친구들과 즐기고 싶었고, 아버지께서 염소 한 마리 정도는 내주시면 좋겠다고 기대하였습니다.

큰아들의 처지에서 보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아들이 섭섭함을 꺼내 놓은 상황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였을까요? 요즘 시대의 상담가들이라면, 마음을 물리주어서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하고, 억울한 마음을 달래 주라고 조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²¹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²²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²³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²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²⁵ 그때에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²⁶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²⁷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몹성히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²⁸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²⁹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³⁰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³¹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³²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과대신에 큰아들에게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15,31)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종처럼’이라는 표현에 가장 마음이 쓰였을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이 큰아들의 것이라고 한 말은 “너는 결코 종이 아니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속으로 큰아들처럼 우리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 하느님께 섭섭할 때가 있기도 하고,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사과하시거나 달래 주시지 않습니다. 어렵겠지만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창현 모세 신부>

성화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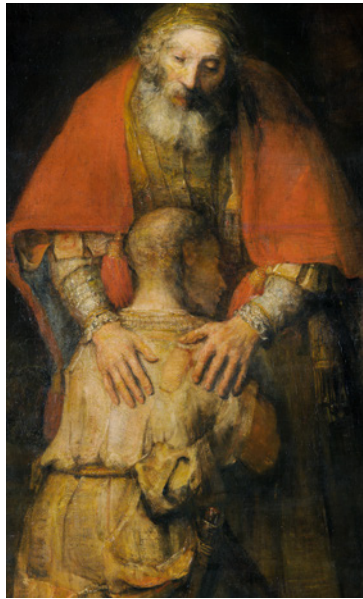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화를 하나 뽑으려면 사람들은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있는 렘브란트 (Rembrandt, 1606-1669)의 1668년경 작 <돌아온 탕자>를 뽑는다. 이 성화는 루카복음 15장 11-32절이 그 배경이다.

탕자가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자기 유산을 달라고 했다. 아버지는 아무 대꾸 없이 그냥 준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갔다. 아버지를 떠난 먼 곳이란 과연 어떤 곳일까? 방탕한 생활을 하는 곳이다. 창녀와 술이 넘치는 곳이다. 살기가 어려워 배고픈 곳이다. 거지처럼 사는 곳이다.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그는 제 정신을 차린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멀리서 보고 달려간다. 반쯤 장님이 된 아버지는 몸을 낮추어 그를 부드럽게 끌어안는다. 화가는 아버지의 속옷과 아들의 옷에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여 두 사람의 깊은 유대감을 묘사해준다.

이 성화의 핵심은 아버지의 손이다. 그 손에 모든 빛이 모여 있다. 그리고 그 손에 화해와 용서와 치유가 있다. 그분은 아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안으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시는 어머니이시다. 그래서 화가는 탕자를 끌어안는 손을 그릴 때,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으로 그렸다. 그리고 아버지 배에 고개를 파묻은 탕자의 모습도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으로 그렸다.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인임을 고백할 때, 탕자처럼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체험하고 새로 태어나는 것 아닐까?...



<돌아온 탕자 (부분)>, 렘브란트

하느님의 교회는 죄인들의 교회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회개하는 곳이다. 오늘은 우리가 심판관의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죄인의 통회하는 무릎이 되어야겠다. 우리도 돌아온 탕자처럼 무릎 꿇고 고백하자.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루카 15.21)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껴안으며 말씀하실 것이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루카 15.22-24)

그런데 돌아온 탕자가 노년이 된 렘브란트의 삶과 흡사한 점이 놀랍다.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고, 낭비로 모든 재산을 잃었으며, 아내와 세 자녀는 젊은 시절에 잃었다. 그리고 노년에는 파산을 한 뒤 외아들 티투스마저 잃었다.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그는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하느님의 자비임을 깨달았다. 그래서일까? 화가는 이 성화를 그린 다음 해에 하느님 품으로 갔다.

우리는 과연 언제나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회개하는 사람의 무릎이 그리운 오늘이다.

<손용환 신부의 성경 미술관>

전문 보기 : <https://m.blog.naver.com/sonyh252/222171592492>



The Light is ON for You Celebrate the sacrament of reconciliation

The Light is On for You는 교구 내 모든 본당에서 실시합니다.

사순 시기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고백성사가 있습니다.

1 2025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약정

- BLA 기금은 자선 및 영적,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삶을 돕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화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 BLA를 내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교구 웹사이트(<https://www.arlingtondiocese.org/bla>)
- ② QR 코드 스캔 후 크레딧카드 납부



- ③ 친교실에 마련된 BLA 약정 안내 장소에서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④ 현금이나 수표를 쓰셔서 나누어 드린 BLA 봉투에 넣어 성당 입구 BLA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2 성사표 발송 안내

- 3월 25일(화)에 각 가정으로 성사표를 발송하였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3 모임 안내

- 루카회 모임 : 3월 30일(일) 오전 11:30 (B-3,4)
- 베드로회 형제 모임 : 4월 4일(금) 저녁 8시 (B-4)
- K of C 월례 회의 : 4월 6일(일) 오전 11:30 (B-3)

4 봉성체 안내

- 일시 : 4월 4일(금)
- 신청 : 정문기 윌리엄 (703) 598-3316

5 떼제 미사 및 성체 강복

- 일시 : 4월 4일(금) 저녁 7:30
- 6:50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 후 떼제 미사와 성체 강복
- 성체 강복에 함께하시어 거룩한 주님 성심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6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안내

- 일시 : 4월 5일(토) 오전 10:30 미사
- 일정 : 9시부터 묵주기도와 묵상
9:30부터 고해 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9:50부터 십자가의 길 기도
- 매월 첫 토요일에는 성모 신심 미사가 봉헌됩니다.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관계로 새벽 미사는 없습니다.

7 사순 특강

- 일시 : 4월 5일(토) 오후 7시
- 주제 :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 강사 : 양시균 대건 안드레아 신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 사순 특강으로 당일 저녁 미사는 저녁 6시에 봉헌됩니다.

8 이효빈 바오로 신학생 시종직

- 일시 : 4월 5일(토) 오전 10시 미사
- 장소 : Mount St. Mary's University
- 시종직을 받는 바오로 신학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9 페어팩스 메모리얼 파크 묘지 할인/구입

- 일시 : 4월 5일(토) 오전 10시 - 오후 12시
- 장소 : Fairfax Memorial Park Office
- 문의 : 홍의훈 요셉 연령회 회장 (703) 966-8206

10 부활 맞이 대청소 안내

- 일시 : 4월 6일(일) 오전 11:30부터
- 부활 맞이 대청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친교실, 하상관, 주차장 등을 청소할 예정이니 교우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합동 판공성사 안내

- 일시 : 4월 8일(화) 오후 2시 - 5시, 저녁 7:30
- 당일 저녁 미사는 7시에 봉헌됩니다. 미사 후 성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12 우드브릿지 반미사 안내

- 일시 : 4월 12일(토) 오후 12:30
- 장소 : 이종열 마리아 자매님 덕
- 우드브릿지 반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3 2025년 그룹 성서 개강 미사

- 일시 : 4월 12일(토) 오후 5시
- 2025년 그룹 성서 모임을 시작하며 개강 미사를 봉헌하니 신청자들은 함께해 주십시오.

14 이동한 다니엘 신학생 부제 서품

- 일시 : 4월 26일(토)
- 장소 : St. Thomas More 주교좌 성당
- 이동한 다니엘 신학생 부제 서품이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여 참석이 어려워도 부제 서품을 받는 우리 신학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 제 86차 예비신자 모집

- 입교식 : 5월 4일(일) 오전 8:30 (하상관 #110)
- 등록 : 매 주일 선교부 테이블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16 성인 견진 교리 공부 안내

- 일시 : 5월 6일(화) - 6월 3일(화), 매주 화요일 7:30 미사 후
- 접수 : 4월 27일(일) 까지 사무실로 신청 (준비서류 - 세례 증명서, 교적)
- 견진식 : 6월 8일(일) 오후 2:30, St. Thomas More 주교좌 성당

17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서한 필사

-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지향하며 신부님의 서한을 필사하고자 합니다.
- 신청 기간 : 4월 6일(일) 교중 미사 후까지
- 필사 시작 : 5월 4일(일) 시작
- 필사 마감 : 서한 필사 다 하실 때까지
- 준비물 :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 서한집, 필사 노트 등 (신청자에게 판매 예정)

교중 미사 반주자를 찾습니다

- 전공자 / 반주 경력 / 가톨릭 교우로서 관심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중미사 예물봉헌

03/30 이번 주	프린스 윌리엄 구역
04/06 다음 주	우드브릿지 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5년 3월 23일 (사순 제3주일)

봉헌금	\$ 8,759.00
교무금	\$ 4,110.00
교무금(신용카드)	\$ 5,875.00
온라인 봉헌	\$ 4,845.00
합계	\$ 23,589.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 정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2025년 4월 3일(목) 오후 5:00 - 6:00
2025년 4월 4일(금) 저녁 8:00 - 9:00
2025년 4월 6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바이블 무브 : 탈출기 (1)
"백성 차원의 이야기 시작"
- 손남민 즈가리아 수녀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